

# 海外業界動向

## 미국의 '92년도 전자산업 동향

미국의 전자공업회(ETA)는 최근 '92년도 미국의 전자산업 공장출하 기준 매출액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92년 매출액은 2,867억 5,550만弗로 '91년 2,714억 78,000만弗 보다 5% 상승한 것이다.

부문별 공장 출하액을 보면, 2자리수의 성장률을 나타낸 것은 가정용전자기기, 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각각 12%, 13.8%, 13.2%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기타 통신분야가 7.9% 감소하였다. 또한 EIA는 전자기기관련 제품의 해외 수출 및 수입액을 발표하였는데, 수출액은 6% 증가한 772억 7,300만弗이지만, 수입액은 14% 신장한 882억 8,200만弗 수출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작년 전자산업의 무역적자액은 전년도의 45억弗에서 110억弗로 확대되었다.

## 미국의 전자산업 수출입 동향

구 분	수 입			수 출		
	1992	1991	증감(%)	1992	1991	증감(%)
총 계	88,282	77,428	14.0	77,273	72,926	6.0
가 정 용 전 자 기 기	16,551	14,800	11.8	3,094	2,670	15.9
산 업 용 전 자 기 기	46,875	40,190	16.6	51,864	49,343	5.1
통 신 기 기	8,263	7,276	13.6	8,496	7,331	15.9
기 타 통 신 기 기	1,104	1,030	7.2	2,526	2,584	-2.2
컴 퓨 터 및 가 변 기 기	32,135	26,623	20.7	30,007	28,835	4.1
산 업 용 기 기	3,121	3,015	3.5	7,447	7,557	-1.5
의 료 전 자 기 기	2,252	2,246	0.3	3,388	3,036	11.6
전 자 부 품	24,586	22,438	10.8	22,315	20,913	6.7
전 자 관	620	545	13.8	692	655	5.6
수 동 부 품	8,805	8,772	0.4	5,663	5,756	-1.6
고 체 소 자	15,431	13,121	17.6	15,960	14,502	10.1

자료 : 미국 상무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EIA가 작성

## 1992 미국의 전자산업 공장출하액

(단위 : 백만弗)

구 분	1992	1991	증감(%)
총 계	286,755	271,378	5.7
가 정 용 전 자 기 기	10,147	9,057	12.0
산 업 용 전 자 기 기	217,542	206,347	5.4
통 신 기 기	40,021	35,161	13.8
기 타 통 신 기 기	29,699	32,249	-7.9
컴 퓨 터 및 주 변 기 기	59,301	52,382	13.2
산 업 용 기 기	24,864	24,336	2.2
의 료 전 자 기 기	7,783	7,535	3.3
기 타	55,874	54,684	2.2
전 자 부 품	59,066	55,974	5.5

자료 : 미국 상공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EIA가 작성

## 미국의 '92년도 음악소프트 시장 동향

RIAA의 회장은 미국의 음악소프트 시장에 대하여 「금액·수량 기준으로 모두 신장률이 10%를 상회한다는 것은 대단히 기뻐해야 할 일」이라며 「작년 후반, 특히 휴가시즌의 수요가 기대를 훨씬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하고

(단위 : 백만弗)

미국의 음악소프트 시장 동향

(단위 : 백만弗, 백만枚, %)

	1990		1991		1992		'92/'91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865.7	7,541.1	801.0	7,834.2	895.5	9,024.0	11.8	15.2
CD	286.5	3,451.6	333.3	4,337.7	407.5	5,326.5	22.3	22.8
CD 싱글	1.1	6.0	5.7	35.1	7.3	45.1	28.1	28.5
카세트 테이프	442.2	3,472.4	360.1	3,019.6	366.4	3,116.3	1.7	3.2
카세트 테이프싱글	87.4	257.9	69.0	230.4	84.6	298.8	22.6	29.7
LP/EP	11.7	86.5	4.8	29.4	2.3	13.5	-52.1	-54.1
비닐싱글	27.6	94.4	22.0	63.9	19.8	66.4	-10.0	3.9
뮤직 비디오	9.2	172.3	6.1	118.1	7.6	157.4	24.6	33.3

있다.

'92년 상반기의 수량매출이 4억 230만장이었던 것만 봐도, 후반기의 매출이 작년 전체의 매출을 올리는 데 얼마나 공헌했는지 알 수 있다.

'92년의 각 분야별로는 콤팩트 디스크(CD)의 판매가 '91년 3억 3,330만장에서 22.3% 증가한 4억750만장을 기록하며, 이의 신장이 음악소프트 전체 금액 기준 매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CD플레이어의 보급률은 42%이며 그중 52%는 차량탑재형이다.

작년도 CD플레이어 수량매출은 전년대비 16.4% 증가되었다.

카세트 테이프(싱글 제외), 시장은 31억弗로, 전년대비 3.2%증가하였으며 앨범은 출하수의 4.7%를 점하고 있어, 오디오 시장에서의 쉐어는 여전히 크다.

CD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뮤직 비디오로 RIAA가 '89년부터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 분야는 수량 기준으로 24.5%증가, 금액기준으로는 33.3% 증가를 기록하였다.

독일의 정보기술 산업 동향

독일의 정보화기술(IT)산업의 경기가 본격

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95년이나 '96년이라는 예측이 시장조사회사인 디볼트社로부터 발표되었다. 그때까지 거시경기가 호전되어 기업의 사업재편도 일단락 되고, 보류되었던 투자계획이 활성화된다고 同社에서는 보고 있다.

경기가 호전된 뒤 업계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IT산업 전체적으로는 7~8%, 컴퓨터 부문은 7~9%로 예측하고 있다. 동사의 보고에는 컴퓨터의 기종별 전망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에 의하면 대형시스템은 포화상태에 있어, 판매대수는 담보 또는 감소되나, 대형 미만의 기종에서는 빠르면 내년에 수요가 어느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소프트 분야에서도 부가가치구조의 개선을 목표로하는 하드업체가 소프트·서비스부문에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기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작년 독일의 IT산업은 텔레콤의 대규모 투자계획 덕분에, 전년대비 6~7%의 신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전자부문은 4~5%의 성장에 머물렀다.

컴퓨터업계의 전기는 봄까지는 순조로웠으나, 그후 급속히 하강세로 바뀌어 소프트웨어 부문도 이에 휩쓸리고 말았다.

'92년 독일의 전자산업 동향

독일 전자기술산업연맹(ZVEI)은 최근 업계의 현상과 전망에 관한 ZVEI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특히 작년도의 생산감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 ①업계의 부진은 작년 중반경부터 눈에 띄기 시작하여, 수주·생산·판매 모두 감소하였으나 생산은 전년대비 4%감소하여 금액면으로 1,704억DM에 머물렀지만 구 동독지역에서는 조금 바닥을 벗어나는 기미가 있어 구서독에서 투자를 증대시킬 생각을 갖고 있어 금년 초부터는 생산이 늘고있다.
- ②부분별로 보면, 품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AV기기와 정보부문은 모두 20%나 감소했으나, 측정기술·오토메이션기술부문은 6%감소, 에너지 관련기기부문은 2%감소에 머물렀다. 반면, 통신기술관계는 7%판매 증가, 차량 및 조명관련 부분은 2%증가로 나타났다.
- ③조업률은 투자재에서 84%에서 81%로, 소비재에서는 91%에서 85%로 하락한 반면, 임금은 7%상승하였다.
- ④구 서독지역의 고용인원은 '91년말 현재 107만 2,000명이었으나, '92년말에는 100만 170명으로 7만여명이 줄었고, 금년 4월 초 쯤에는 1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구 동독지역에서는 감소경향이 너무 강해 '91년말 15만 3,000명에서 '92년말에는 8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
- ⑤경기호전의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중의 국내 수주잔액은 0.1%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수출면에서는 3.9%감소하였다. 현재 미국시장만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중기적으로 세계 전자산업시장은 2000년까지 연평균 6~7%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 ⑥동구시장은 하나의 찬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거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일본외에, 연평균 7~8%의 경제성장

이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독일 전자산업의 진출수준은 아직 미약하다

### EC의 HDTV 방식 채택 동향

트리분지에 따르면 EC당국은 현행 TV와 HDTV 중간방식인 D<sub>2</sub>MAC 뒤에는 디지털 HDTV로 이행할 방침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EC는 미국 디지털 TV기술을 그대로 채용할 의사는 없으며, EC의 독자적인 디지털 TV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 개발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EC당국은 말한다.

당초의 계획으로는 EC는 D<sub>2</sub>MAC에서 아나로그, HDMAC 유럽 HDTV방식으로 이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방식은 미국의 디지털 TV 기술에 비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영국이 반대함으로써 현재 유럽HDTV 행동계획은 답보 상태에 있다.

의장국인 덴마크는 조속히 이 신HDTV 전략을 내걸고 영국 설득공작을 펼칠 예정인데 덴마크는 3월말까지 특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유럽, HDTV 행동계획을 채택할 계획이다.

同 계획은 향후 5년간 25~32억 프랑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 중국, 전자산업부 신설 검토

최근 북경에서 개최된 제8회 전국인민 대표대회에서 이봉수상은 사회주의 경제·확립을 향한 개혁정책을 발표, 건설한 고도성장에 관한 법안을 제안했는데, 그 가운데 첨단기술의 연구 개발은 경제건설에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중국도 세계 과학기술혁명의 흐름에 발맞추어, 최대중점항목의 하나로서 대응해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정부의 '91개혁안 가운데 국무원에

속하는 부분을 7개 부문으로 나누어 41개 부문을 만들고, 그 속에 '88년 기구개혁시 설치되어진 전자공업부를 독립시키는 제안을 제출하였는데 본안은 채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자공업부가 독립적인 부문이 되면 중국의 전자공업 전체를 포괄하는 업계 전체에 대한 관리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의 HA시장 전망

일본의 주택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는 HA는 오래전부터 1조엔 산업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동협의회의 통계에 의하면 '88년 343억엔, '89년 332억엔, '90년 387억엔, '91년 446억엔의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수요예측은 2000년이 되어도 1,666억엔으로 1조엔과는 거리가 멀고 우산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통계의 출하전표와 집계시 각 기업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HA를 좁은의미로 한정해(홈 콘트롤러, 세큐리터 등 15개 품목에 한정) 에어컨 등의 HA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등은 제외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보용 단말기기와 HA에 접속되는 주택기기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첨가한 총 HA시장 규모를 추계하게 되었다.

이 결과 '91년 실적이 5,470억엔, '95년이 1조 2,381억엔, 2000년에는 2조 290억엔으로, 2조엔을 초과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판명되었

### 일본의 HA 관련 시장 전망

(단위 : 억엔, %)

	실적치	예측치		연평균 성장률 (1991~2000년)	
	1991년	1995년	2000년		
출하통계대상품목	446	885	1,666	15.8	
예측 대상 기기	정보용통신기기	813	1,514	5,285	23.1
	주택설비기기	8,211	9,982	13,339	5.5
	소 계	9,024	11,498	18,624	8.4
합 계	9,470	12,381	20,290	8.8	

다.

그 내역으로서는 자체통계대상품목(협의의 HA)이 1,666억엔, IC카드전화기 등 정보용 단말기기가 5,285억엔, 룸에어콘 등 주택설비기기가 1조 3,339억엔으로 주택설비기기가 65.7%를 점하고 있다. (단, 에어컨과 급탕기 중에는 HA기기와 관련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계시에는 이를 제외하였음. 또한, 정보용 단말기기중에서도 가정용 워드프로세서는 전체의 31.1%만 HA와 관련있기 때문에 기기에 따라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계산하였음)

한편, 이들 추계는 논리 모델을 작성하고, 세대수·주택 착공수 등을 종속변수로 사용해, 로지스틱 곡선으로 연차별로 추계한 것으로 그 추계에 의하면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8.8%, 그중 HA기기는 15.8%, 정보용 단말기기는 23.1%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 침체 경향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 가운데서는 극히 높은 성장률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동 협의회에서 '91년에 있어서의 관련 산업의 시장(17개시장분야)규모에 대해서는 주택부품(55개품목, 출하금액)이 4조 2,822억엔, 가정용전자제품이 1조 1,953억엔, 팬이 8,440억엔, 화장품('90년)이 1조 2,649억엔 등으로 HA관련시장('91년시점)은 퍼스널컴퓨터나 팬시장보다 조금 크고, VTR이나 공작기계보다 조금 작은 시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일본 소니, 차세대 고밀도 자기디스크

SONY는 최근 현재 PC나 워크 스테이션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소형 자기디스크 시스템에 대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차세대 고밀도 자기 디스크기술의 개발에 성공하여 2~3년내에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신기술은 CD의 기술그룹과 자기기록 그룹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해, CD의 발

상을 개입시킨 PERM(Play Embossed Rigid Magnetic)디스크 개발 기술에 의해 실현된 것으로 이용한 識作機는 5,000 TPI를 실현, 2.5인치 HDD한장(양면)당 200MB의 기억용량을 달성시켰고, 또한 장래에는 이 사이즈로 2GB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치 비용은 같기 때문에 비트 단가는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소니종합연구소장은 「개발에 성공한 신기술은(자기디스크 장치의 대용량화에 있어)오히려 출발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자기디스크 장치기술은 머지않아 대용량화의 벽에 부딪칠 것이 분명하며, 신기술로 대신하게 되는 크로스 포인트는 이러한 대용량화에 초점을 맞추어 2~3년내에 상용화가 가능케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PERM기술의 공여에 관해 이미 수개칩과 협상중인 소니는 65건의 특허출원을 끝낸 상태로 지난 3월30일부터 나고야 대학에서 개최된 전자정보통신학회전국대회에서 신기술 개발에 대한 발표회가 있었으며, 국제자기학회인 INTERMAG '93에서 발표를 하였다.

### 중국의 전자 상위 100대기업

중국의 기계전자공업부에서는 '92년도 중국에서의 전자기기 생산과 경영상태를 근거로 한 당해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사의 신청을 받아 각지방의 전자공업주관기관의 추천 및 심의를 거치고, 최종 기계전자부의 확인·결정 절차를 거쳐 상위 100개사를 발표하였다.

동 상위 100개사중 새롭게 등장한 기업은 21개사로, 그 내용은 중국과의 합작기업이 7개사, 추가소유기업 10개사, 집단소유기업 1개사 그리고 주식회사 3개사이다. 또 이 가운데에는 우전부 소속의 4개사가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동 상위 100개사에는 몇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첫째, 규모가 커서 매출액이 10억 원을 돌파한 기업이 작년의 10개사에서 13개사로 늘어났으며 특히 칼라TV의 생산 확대가 큰 역할을 하였다.

둘째, 기업간의 발전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조조정 요구에 부응해 지금까지 많은 기업이 연합하여 합병해 왔는데 작년에는 특히 두드러져, 예를 들면 상해광전(주)는 상해 TV 관련1개사, 상해무선 관련 4개사 그리고 상해 녹음기 회사 등이 연합하여 구성된 중국 전자산업 최대의 그룹기업이다.

또한, 이번 상위 100개사의 선정에 있어서는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중시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한편, 기업구성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있어, 전자부문이나 정보, 통신 등 하이테크 투자형의 기업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 중에 투자형 기업은 22%로 작년보다 4% 증가하였고, 부품업체는 20%로 작년보다 4% 늘었다.

### 대만 486 MPU 생산

대만에서 「486」 마이크로 프로세서(MPU)의 생산계획이 추진되고 미국 TI은 대만 최대의 컴퓨터업체인 Acer의 합작반도체제조회사 TI·Acer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4M DRAM을 생산하고 있는 TI·Acer는 사이릭스 설계의 486과 16M DRAM을 대만에서 생산하기 위해 同社의 투자기업과 대만정부에 대해 8,800만弗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TI·Acer에는 Acer58%, TI가 27%, 정부계의 중국신탁은행이 15%를 출자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TI가 과반수 취득을 단념한다면, 필요자금의 절반을 투자할 의향이며, 또한 TI가 同公장에서 생산한 DRAM의 전량을 판매하고 Acer는 생산량의 절반을 구입한다고 하는 현재의 TI와의 판매협정계약을 수정토록

요구하고 있다.

### 일본의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기술

우정성은 최근 「장래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기술의 전망」에 대해 전기통신기술심의회에 자문을 의뢰 동심의회는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에 들어가 '94년 3월까지 답신할 예정이다. 언제 어디서나 음성·영상 데이터 등 다양한 미디어를 네트워크를 통해 복합적·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심의회는 광화이버 통신망의 전국 전개 목표인 2015년을 상정,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개념 및 발전동향, 이용기술 등을 밝히고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에 요구되어지는 기능, 개발 요소기술의 동향, 표준화 동향 등을 구체화해 답신할 예정이다.

### 일본 전기기기산업 동향

일본전기공업회는 최근 전기기기의 '92년도 실적전망과 '93년도의 전망을 발표했다. 그에 의하면, 우선 중전기기의 '92년도 실적전망은 4조 5,146억円で(전년대비 75.5%) 4.5% 감소, 또 가정용기기(전자렌지,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룸에어콘, 기타)는 2조 5,703억円で 약 20%의 감소를 보였으며 중전 및 가정용합계로는 7조 849억円で 약 10% 감소되었다. '93년도 전망은 중전기기가 4조 4,582억円で 다소 감소할 전망이며, 가정용기기는 반대로 2조 4,418억円で 약 3%의 증가가 예상된다. 중전 및 가정용 합계로는 7조 1,000억円で 미미한 증가를 보일 전망이다.

'92년도의 생산실적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가정용기기의 대폭적인 감소로 상반기에는 에

어콘,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등 주요제품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전년수준에 못미쳐, 1조 4,363억엔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하반기에도 에어컨을 중심으로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결국 1조 1,340억엔에 머물렀다.

이 결과, '92년도 실적추정은 2조 5,703억엔에 그침으로써 소비세 도입이 이루어졌던 '89년도를 제외하면, '86년도의 -3.4% 성장 이래, 6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 '92 유럽의 가정용전자기기 매출

프랑스의 시장조사회사 GFK에 의하면, 유럽 '92년 가정용전자기기 매출액은 2% 감소한 2,960억 프랑에 머물러, '90년 수준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작년에 이 부분의 매출이 전년 대비 5% 감소한 520억 프랑에 그친 데 비해 독일에서는 구 동독으로부터의 수요증가로 매출이 4% 증가하였다. 현재 독일에서는 유럽 전체 매출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유럽각국에서는 가정용 전자기기 가격이 평균 8~10% 하락, 이로 인한 유럽 전체의 수요는 증가한 반면, 업계의 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GFK社의 예측에 의하면, 향후 유럽의 VTR 보급률은 현재의 55%에서 80%로 늘고, 비디오 카메라의 시장도 다시 한번 활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의 가정용 전자기기 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VTR도 그 비율이 '85년의 31%에서 '92년에는 24%로 하락하였다. 이것은 비디오 게임, 팩시밀리, 전화 등의 지출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통신·오락기기에 대한 지출은 '85년의 5%에서 '92년에는 11%로 상승하고 있다.